

📖 전례안내

📍	합동미사	
	2월 19일	2월 26일
해설	유소정	송연주
독서	이동호	강신정, 정아인
복사	김건우, 신준철	김병규, 신준철
선창	성가대	성가대
반주	박승희	박승희
평일미사	805 회	
목주기도	53686 단	

🎵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 본당 소식

1. "노래로 드리는 기도" 안내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성당에서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마음과 소리를 모아 정성껏 부르는 노래(성가)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성가를 사랑하는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월 성가 (388 주님의 기도, 267 성모송, 329 미사시작, 501 받으소서 우리 마음)

2. 제대회원 모집

사제가 미사를 잘 바칠 수 있도록 제대 봉사자를 해주실 여성분들을 모집합니다. 단 목요일 저녁 미사 준비를 위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월 1회 이상) 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시길 바라며, 본당 사제나 제대회원에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3. 사순시기 안내

- 재의 수요일 미사 :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미사는 2월 22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날은 금육과 금식을 통해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합니다.

-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십자가의 길이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수난의 길에 동참하는 마음과 수난 공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4. 주일학교 소식

1) 사순 밥 그릇 (Catholic Relief Services' Rice Bowl)

가톨릭 구호 봉사단에서 주최하는 미국 전역의 가톨릭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순 시기의 신앙 행동 프로그램인 사순 밥 그릇 프로그램에, 주일학교 학생들 및 모든 본당 신자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사순 밥 그릇은 성주간 미사동안 수거합니다.

CRS Rice Bowl is Catholic Relief Services' Lenten faith-in-action program. Please join our faith community across the United States. Pick up your family's CRS Rice Bowl today and return it during Holy week! CRS 웹 사이트: www.crs.org

2) 주일학교 스케줄 (Sunday School schedule)

주일날자 (Date)	스케줄 (Schedule)	Lector2	Altar2
2/19/2023			
2/26/2023		Ayn Chung	

*주일학교 스케줄은 <https://sites.google.com/site/clesakkccss/> 에 가시면 언제든지 보실수 있습니다. (The link to Sunday School schedule)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낫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은 누군가의 해석과 생각이 개입하기에 대부분 주관적입니다. ‘기록’ 역시 주관적 입장이 반영되지만, 비교적 객관적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기억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에는 구원 역사가 담겨 있고, 그 중심에 모세를 통한 구원과 계약과 계명이 자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이 먼저 체험하게 하였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 사건들 역시 ‘참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톨릭교회는 믿습니다.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 구원 계획은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완성됩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가치는 율법인데, 율법 중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십계명, 윤리적이고 종교적 의무 등은 신약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신약이 구약에 숨어 있고 신약으로 구약이 드러나도록 지혜롭게 마련하셨다.” (계시헌장 16항) 그리스도께서 당신 피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지만(루카 22,20; 1 코린 11,25 참조), 구약성경은 복음 안에 수용될 수 있고, 신약 안에서 온전한 의미를 얻게 되며, 다른 한편 신약을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서로 깊은 연관성과 단일성을 갖는다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새 하나님 백성 사이에 깊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차이점 내지 신약의 탁월함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약성경은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가장 중요한 증언인데, 교회는 네 복음서가 사도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첫째, 사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의 전달을 통해, 둘째, 교회 설립 당시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 셋째, 이후 복음서의 편집과 정리를 통해 저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의 기록에서는 그분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기억과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역할과 위치는 중요합니다. 복음서는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중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 (루카 1,2)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선교위원회

(가해) 연중 제7주일
(2023년 2월 19일)

미사		성직자			교리 및 모임		
평일	목 (19:30)	주임 신부	정성훈 모세	93moses@gmail.com Cell: 216-801-0747	제대회 기도회	10:30	수요일
	교사회 기도회				19:00	수요일	
주일	10:00 (합동)	종신 부제	신철야 안드레아	cjshinmd@gmail.com Cell: 440-823-3797	남성 기도회	18:00	화요일
	19:30 셋째 토요일				캐톤 기도회	20:30	수요일
캐톤	19:30 셋째 토요일	종신 부제	신철야 안드레아	cjshinmd@gmail.com Cell: 440-823-3797	에파타 모임	10:30	금요일
					주일학교	11:30	주일

클리블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주보위원	이승엽 유스티노	seungyup.lee.seungyup@gmail.com	216-308-3870
------	----------	---------------------------------	--------------

본당 주소 : 2310 West 14th Street, Cleveland, OH 44113

☎ : 216-861-4630 홈페이지 : www.clekcc.org 이메일: office@clekcc.org